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모바일을 활용한 대학 수업 연구

음영철°
°삼육대학교 교양학부
e-mail: sangoma@syu.ac.kr°

A Study of Undergraduate Classes Using Mobile Devices

Yeong-Cheol Eum°
°Division of General Studies, Sahmyook University

● 요 약 ●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이 교육환경을 바꾸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대학 수업에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은 휴대성과 신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노트북이 갖는 불편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 먼저 교수는 수업 전에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단체 카톡방, 조별 카톡방을 운영해서 공지사항을 올리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때로는 개별 카톡방을 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별 카톡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조별 카톡방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키워드: 모바일(mobile), 협업(copperative work), 카카오톡(KakaoTalk), 단체 카톡방(Kakao Group)

I. 서 론

1990년대 이후로 세상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 변화는 라디오 텔레비전이 주도했던 일방적 소통 방식이 아닌 쌍방향이며, 그 중심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다. 차이점은 슬로우 콘텐츠가 아니라 패스트 콘텐츠라는 데 있다. 더 있다. 모바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손 안의 4인치짜리 작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예컨대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음악을 듣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SNS를 활용한 수업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게 하며,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거나 강화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SNS는 활용 형태에 따라 커뮤니티, 미니 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컴퓨터나 노트북이 부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동 중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면,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보다 그 활용가치가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학 수업 시간에 적절히 활용된다면, 수업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하여 대학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업 전후에 이루어지는 교수와 학생 간의 정보 교환과 아울러 학생들이 발표 사례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보다 나은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모바일을 활용한 대학 수업

1. 카카오톡을 활용한 강의 전후 활동

오늘날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SNS를 활용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다시 말해 SNS를 활용한 수업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오늘날 교수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실시간 알 수 있다. 이러한 카카오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첫째, 단체 카톡방은 수업에서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학생들과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나 미니 홈피, 블로그와 다른 점은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이다. 과제라든가 수업에 대한 질문, 특별과제에 대한 사진이나 체험담, 체험학습을 나갔을 때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조별 카톡방 운영은 학기가 시작되는 첫 수업 시간에 만들게 한다. 한 학기 동안 조별 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해 학생들이 조별 카톡방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장점은 서로 출석을 챙겨주기도 하고 과제를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별 카톡방을 통해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1]

셋째, 개별 카톡방은 교수와 학생 간의 1:1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된다. 교수는 결석하는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만나서 말하기 곤란한 상담을 카카오톡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채널이 개별 카톡방인 것이다.

2. 카카오톡을 활용한 대학생 발표 사례

대학에서의 교양수업은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은 조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발표에 따른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에서 <설득과 협상>이라는 교과목을 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협상 이론을 제공하였을 때, 학생들은 협상의 열두 가지 핵심 전략이 스마트폰 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표하였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커플이 카카오톡 상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이들 남녀들이 어떤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예로 보여준 것이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는 조별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운 협상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일상적인 남녀 간의 대화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문으로 삼으면서 이때 활용되는 협상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을 활용한 발표들은 교사와 학생 간에, 학생과 학생 간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모바일을 활용한 대학 수업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한 바를 정리하자면, 먼저 교수는 수업 전후에 단체 카톡방, 조별 카톡방, 개인 카톡방을 활용하여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지하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조별 활동을 준비하거나 발표할 때 응용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의 공간만이 아닌 강의실 공간을 가로지르며 교육환경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Kreijns, K., Kirschner, P., Jocherms, W. “The sociability of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ional Technology &Society 1:47-59, 2002.